

성모님 탄생 (축일 9월 8일 / 강론 9월 6일)

Ομιλία 6.9.2020 Γενέσιον Θεοτόκου

"성모여, 당신으로부터 솟아오르신 의로운 태양, 우리 하느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 축복하셨고, 죽음을 짓밟고 우리에게 영생을 베푸셨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탄생은 온 세상에 기쁨을 주었나이다."(성모 탄생 축일 찬양송)

9월 8일 축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동정녀이시며 하느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이신 성모 마리아가 탄생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예수님을 낳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즉 죽음을 멀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하느님의 말씀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구원자를 '육신으로' 낳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천사들도 함께 기뻐합니다.

천사들도 '은총 받으신' 마리아의 탄생을 기뻐했으니, 마리아의 어머니, 즉 불임에서 벗어나 어머니가 된 의인 안나의 기쁨은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아버지인 의인 요아킴도 자식을 얻기 위해 뜨거운 기도를 드렸고, 나이가 많았음에도 하느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주셔서 아버지가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쁨 또한 얼마나 컸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구약성서에는 불임이었던 여인들이 아기를 가지게 된 기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레베카, 사무엘의 어머니 안나는 기적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의 모친 안나의 잉태

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어머니들도 오랜 불임에서 기적으로 자식을 낳았지만, 안나와 요아킴의 자식만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은총 받으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모님은 의인 요아킴과 안나가 뜨겁고도 인내를 가지고 올린 기도의 결실로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의 선조 의인들은 자식을 얻기 위해 확고한 믿음과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모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하느님께 기도를 올릴 때 자신들의 요청이 이뤄질 것이라는 신념을 가졌으므로 실망하지 않고 희망을 키워나갔습니다. 자식을 갈망하던 기간이 짧았던 것도 아닙니다. 전승에 의하면 의인 안나는 무려 50년의 불임 기간을 거치고 나서야 테오토코스이신 성모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조들인 요아킴과 안나 의인의 인내를 본받아야 합니다. 불임을 겪고 있는 부부는 희망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루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느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불임부부가 기적으로 아이를 낳게 되는 예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테오토코스의 부모가 오랜 기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를 드린 것을 우리는 매우 소중하게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모범을 따라 영적 단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매사에 연약한 우리는 영적 투쟁을 하면서 자주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실망 속에 열정은 식어버립니다. 영적 투쟁을 게을리하게 되며 영적 단련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요아킴과 안나를 잊지 맙시다. 하느님께서 자신들에게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그들이 기도를 그만두었습니까? 문을 두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소망 갖기를 그만두었습니까? 수십 년 동안 보여준 그들의 참된 인내와 용기가 얼마나 아름답게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납니까! 마침내 그들의 믿음은 상을 받았습니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해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 하느님의 뜻과 소망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루가 18:1 참조) 하느님께서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귀중한 선물인 그분의 신성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언제가 가장 유익한 시기인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 모든 방법을 아십니다!

의로운 요아킴과 안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유익과 영적 발전을 위해 절망과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를 보여줍시다.

지극히 거룩하신 테오토코스의 중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믿음과 희망, 인내, 신뢰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영적인 선행이 없는 것에 대해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신성하고 전능하신 은총으로 우리의 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어 새롭게 태어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